

미국 엔델로프 동굴에 관한 소고

-엔델로프 동굴을 찾아서-

김 익 종*

A Study on the Antelope Cave in USA

Ik Jong Kim*

영어도 익숙하지 않고 안내자도 없이 떠나면 미국 대륙을 무작정 아내와 같이 미국행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 회사앞에 가니 미국인은 무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한다. 안절부절 멍하니 서 있을때 옆에 있던 재미한국인이 대신 수속을 하여주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여 난생 처음 낯선 외국땅에서 핸들을 잡고 달리게 되었다. 필요한 지도를 사고 이정표를 보면서(보조석에서 안식구가 지도를 보고 알려줌) 달려 동해안인 태평양을 보면서 남쪽으로 달려 몬트레이, LA,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모뉴먼트벨리, 브라이스캐년, 자이언, 데스벨리를 거쳐 북쪽에 있는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을 거쳐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을 한달간 촬영을 하고 무려 17개의 시와 명소를 찾아 서부의 사막과 들판을 가로 질러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편이식인 햄버거 등으로 대신하였다. 길을 잘모르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다시 봐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위험을 무릅쓰고 차에서 구부리고 아내와 함께 자고 새벽부터 촬영에 임했는데 한번은 차에서 자는데 경찰차가 다가와 무어라 하기에

무조건 “아임 타이어드(I'm tired), 베리 타이어드”를 외쳤더니 그냥 가버린 적도 있었으며, 또 한번은 밤에 공원에서 자는데 우리차에 썬치라이트를 비치면서 마이크로 무어라 하는 것 같아 잠을 깨고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어서 아무래도 나에게 나가라는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옮기었던 일도 있었다. 한번은 기름을 넣으려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다음집에서 넣는다는 것이(네바다주) 한없이 달려도 기름집이 없었다. 기름은 바닥이나는데 가는 차도 오는 차도 보이지 않으니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걱정이 앞섰다. 나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내리막길에선 시동을 끄고 달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 하늘이 도와서 요세미티 근처 몇채의 집이 있는 리빙이라는 마을에서 기름을 넣게 되었는데 기름값은 턱없이 비쌌다. 한국에 와서 시동을 끄고 달린 이야기를 하였더니 시동을 끄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누구든 낯선 곳을 다닐 때는 항상 기름을 채우고 목적지의 거리를 환산하고 다녀야 할거라 생각한다.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90번 하이웨이를 타고 페이지라는 마을에서 주유를 하는데 주유소에 있는 마을 신문에 엔델로프 동굴 사진이 실려있

* 한국동굴학회 부회장, 국권 초대작가

는 것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1km정도를 가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찾아갔다. 철조망으로 된 문이 닫혀 있었으며 아침 9시에 연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잤다. 차에는 먹을 것이 있었으니 걱정이 없었다.

아침 9시에 인디언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20불을 달라고 하기에 주고 드러가는데 4륜구동차를 타고오지 않은 사람은 들여 보내지 않기에 알아 보니 모래사막이라 4륜차가 아니면 못간다는 것이다.

약 3km정도 가니 소가 보이는 목장 같으면서 사막이었다. 그 평지에 커다란 사암으로 된 언덕이 있는데 이곳이 엔텔로푸 동굴이다. Antelope 동굴을 Antelope Canyon 혹은 일명 Antelope Creek이라고 부르는데 이 엔텔로프동굴은 서부대륙 사막지대의 인디언 보호구역내에 있으며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콜로라도강 줄기의 사막 중앙부에 위치한 평지에 있는 사암 언덕이었다.

협곡의 폭은 1m도 안되는 곳이지만 높이는 약 15m이고 길이는 약 100m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 않은 동굴이다.

동굴안은 꾸불 꾸불한 협곡으로 되어 있으며 빛이 없는 곳은 칠혹같은 암흑천지이지만 암벽 틈새로 스며드는 빛이 굴절된 정도의 차이에 따라 검붉은 사암이 눈부신 주황색, 보랏빛 등으로 순간 순간의 황홀한 신비의 빛을 발한다. 마

치 실크에 비치는 원초적인 신비의 하모니라고나 할까..... 최면에 걸린듯이 걸을 때는 음을 멈추게 하고 흥분된 가슴을 억제 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사람은 누구나 빛을 예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동굴은 하루중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몇군데 부분적으로 약 2분에서 3분 가량 비치는데 놓치지 말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

사암은 약 1억5천만년전에 모래가 뭉쳐서 생긴 암석으로서 그 구성 입자는 모래이지만 자갈 또는 점토가 소량 들어있으며 대부분 모래이고 그 성분은 석영, 장석, 암편으로 되어있다. 사암은 퇴적암이 25%를 차지하며 풍화작용과 빙하기에 빙하에 의해 깎여 돌출된 지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부 아메리카 大陸은 수십억년 전에 형성된 해저가 大陸棚이 隆起되어 지층이 파괴와 충돌 그리고 빙하기에 빙하가 스쳐가면서 생성된 곳인데 이런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랜드캐년, 모뉴먼트벨리, 아치스, 자이언, 케년랜드, 그리고 브라이스캐년은 사암으로 된 대표적인 공원이다. 마치 많은 불상의 군상같은 혹은 마천루의 숲과도 같은 국립공원이다. 콜로라도강 줄기를 막아 생긴 파웰호수 등이 있는데 이 호수 주변은 검붉은 사암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암벽이 호수에 비친 빛과 그림자는 신비한 영상의 극치이다.



사진 1. 96년도 국전대상 작품(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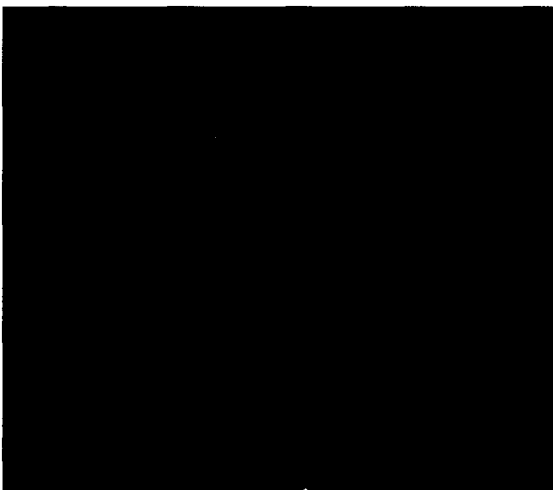


사진 2. 누드같은 동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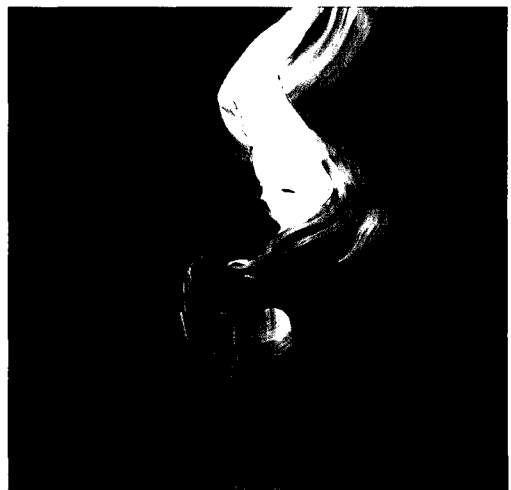


사진 3. 동굴의 기묘한 모습



사진 4. 폭포같은 빛줄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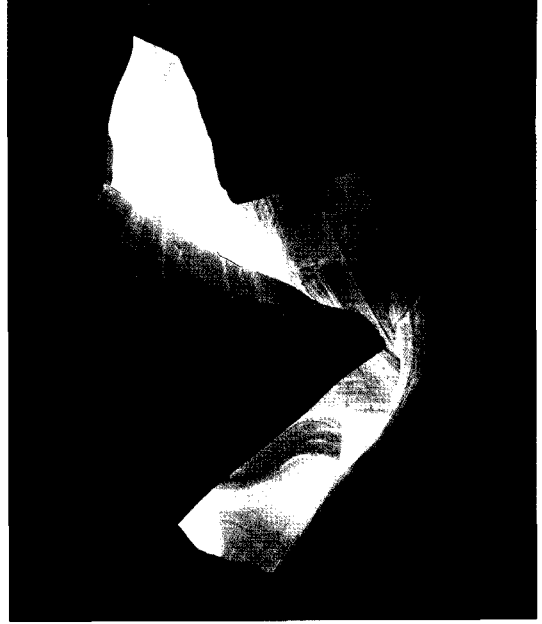


사진 5. 유두모양의 모습



사진 6. 빛이 비치는 동굴 내부 모습



사진 7. 동굴입구에서 필자 부부